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5b0a8e3b4a0e5656943141413c3def6d37e2a6af32d9f5abf7224fb4bf540474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**주요 뉴스:** 아시아 경제, 델타 변이 확산과 저조한 백신 접종 등으로 회복 모멘텀 약화
 - 미국 하원,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 승인
 - 골드만 삭스, 연준은 금년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
 - Wells Fargo, S&P500 지수는 연말까지 8% 추가 상승 가능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잭슨 홀 회의를 앞두고 이틀 연속 위험회피 성향 완화

주가 상승[+0.2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4bp]

 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가속화 기대 지속 등이 배경
유로 Stoxx 600 지수는 관망 분위기 등으로 보합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테이퍼링 시행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달러화 매도 증가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.1% 상승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가 상승과 백신 보급 촉진 전망 등이 반영
독일은 양호한 2/4분기 성장률(수정치) 결과 등으로 강보합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64.5원, -1.6원) 0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8/24일	8/23일	전일대비			8/24일	8/2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86.2	4,479.5	0.15%	국채 금리 10y	미국	1.29%	1.25%	4bp
	유럽	471.79	471.88	-0.02%		독일	-0.48%	-0.48%	0bp
	중국	3,514.5	3,477.1	1.07%	CDS 5y	한국	18bp	18bp	0bp
	일본	27,732	27,494	0.87%		중국	35bp	35bp	0bp
	한국	3,138.3	3,090.2	1.56%	위험 지표	EMBI+	-	365	-
환율	달러지수	92.88	92.96	-0.09%		VIX	17.22	17.15	0.41%
	유로화	1.1756	1.1745	0.09%		WII유	67.54	65.64	2.89%
	엔화	109.65	109.70	0.05%	원자재	구리	425.4	423.7	0.40%
	위안화	6.4714	6.4816	0.16%		금	1,802.9	1,805.4	-0.14%
	원화	1,165.6	1,173.7	0.69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아시아 경제, 델타 변이 확산과 저조한 백신 접종 등으로 회복 모멘텀 약화

- 2020년 상반기 이후 아시아 경제는 강력한 성장을 구가했지만,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제한조치가 확대되는 등 성장 둔화의 징후가 증가.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
- ING는 이를 반영하여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의 성장률 전망을 이미 하향 조정. Refinitiv에 따르면, 역내 주요기업의 3/4분기 이익증가율(전기비 기준)도 6분기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
- 당분간 역내 국가의 수출증가율이 30~40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,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임에 주의할 필요. 한편 향후 경기회복 전망은 중국의 추가부양책 시행 여부, 동남아시아의 백신 접종 속도 등이 좌우할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하원,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 승인

- 찬성과 반대는 각각 220, 215표를 기록했으며,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법안은 9월말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.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과 협력하여 예산결의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짓겠다고 언급
- 이번 합의는 민주당 내 펠로시 의장과 중도파 의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감소했음을 시사. 그 동안 중도파 의원들은 인프라 투자 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요구

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, 자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에 위험정보 공개 강화를 요구할 방침

- 현재 미국에 상장된 250여개의 중국 기업들에게 정치 및 규제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, 이를 연말 보고서에도 포함시킬 계획.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
■ 골드만 삭스, 연준은 금년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

- 올해 11월과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확률을 각각 45%, 35%로 추산. 월간 150억달러(국채 100억달러, 모기지담보부증권 50억달러)씩 매입규모를 축소해, 2022년 9월에는 자산매입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

■ ECB 슈나벨 이사,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

- 최근 그림자 금융 규모가 다시 확대되면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, 이는 향후 위기 상황 발생 시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. 또한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신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첨언

■ Wells Fargo, S&P500 지수는 연말까지 8% 추가 상승 가능

- Christopher Harvey 애널리스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연말 지수는 4825에 이를 것으로 예상. 다만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시행하기 시작하면 지수는 다시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첨언

■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코로나 19 등으로 저소득국가의 빈곤 퇴치에 난항

- 2020년 해당 지역에서 8000만명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목표의 진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. 코로나 19에 따른 이동제한과 교육 및 의료의 불평등 제공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

■ 대만 기업 Hon Hai 회장, 반도체 부족은 내년 2/4분기 지나서도 지속될 가능성

- 류 영 회장은 예상보다 코로나 19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

■ 뉴질랜드 중앙은행, 금리인상 연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핵심 이유

- 크리스천 후스비 총재보는 해당 결정은 델타 변이에 따른 경제 위협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. 정책결정은 봉쇄조치의 연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, 통화위원들은 0.5%p의 금리인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24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: 9, 7월(25), 예상치(27)
- 미국 7월 신규주택판매(만채,연환산): 70.8, 6월(67.6), 예상치(70.0)
- 독일 2/4분기 성장률(전기비,수정치): 1.6%, 1/4분기(-1.8%), 속보치(1.5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25 현지시각 기준)

- ECB 데 쿼도스 부총재 강연, 미국 7월 내구재 수주, 독일 8월 Ifo 경기기대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9개월래 최저치인 유로화, 미·유로존간 성장전망 및 통화정책 괴리에 기인 - WSI**
(Euro Near Nine-Month Low as Fed, ECB Policies Diverge)
 - 연준은 테이퍼링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, ECB는 유로존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. Monex Europe의 Simon Harvey는 주요국 중앙은행 중 ECB의 긴축기조 전환이 가장 느릴 것으로 예상
 - 아울러 델타변이 확산 및 봉쇄로 인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중국과 무역이 활발한 독일 및 유럽 주요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. 헤지 펀드들의 유로화 약세 베팅도 2020년 3월 이후 최대치에 근접
- **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장기화, 빈부격차 지속의 원인 - 블룸버그**
(Fed Decries a Wealth Gap It Helps Perpetuate)
 - 연준의 양적완화 취지와는 달리 소득계층 간 부의 격차는 큰 폭 확대. 3월 기준 미국 가계의 상위 10%가 시가총액 89%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, 초저금리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. 이는 기업 투자를 통한 낙수효과 기대와 괴리
 - 프린스턴 대학 연구진은, 왜곡된 자산 분배가 사회 문제이며 대규모 부를 축적한 이들의 과잉저축이 생산적 투자로 유입되지 않음을 지적. 이에 연준은 소득격차를 사회적 위험보다 경제전망의 리스크로 인식할 필요
- **바이든의 아프간 행보, 동맹국은 미국 세계화 역할에 명확성을 요구 - Financial Times**
(Biden's America is confused — and so is the world)
- **유로존 경제, 미국의 긴축기조 전환은 우려되나 회복 전망은 긍정적 - 블룸버그**
(Will Slow-and-Steady Europe Win the Economic Recovery Race?)
- **코로나 19 이후 경제 지형,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 - Financial Times**
(Losing the generation game: could economic setbacks radicalise graduates?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